

광양시, 올해 노인 일자리 1668개 창출

43억원 투입 건강도우미·주차단속 등 28개 사업 펼쳐 지난해 수혜자 94% 만족...발대식 갖고 9개월간 활동

광양시가 올해도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43억원을 투입한다.

광양시는 지난 5일 광양읍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66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9개월간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밝혔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인원을 지난해보다 188명 늘리고, 예산도 8억원을 증액했다. 2014년부터 '노인일자리 2배 늘리기'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2014년에 비해 인원은 878명, 예산은 28억 7500만원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시는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와 중마노인복지관 등과 함께 지역사회 환경정비와 스크린 교통지원, 깨끗한 정류소 만들기, 경로당 급식도우미, 어린이집 감사 편지사업 등 총 28개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실버건강도우미와 주차단속,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보육시설봉사단 사업이 신설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사업 참여자 725명과 수요처 28개소, 수혜자 8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설문결과 사업 참여자의 참여 동기는 생활비나 용돈마련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자기개발 및 친교유지' 등 순이었다.

사업 참여 만족도 면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71%가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얻었다.

특히 '노-노케어(老-老care) 수혜자 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7%가 만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지난 5일 광양읍사무소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가해 사업의지를 다지는 선서를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4%의 수혜자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고 응답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수요처 28개소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97%가 만족하는 것으로 답했으며 수요처의 96%가 '계속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제공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해 사업만족

도는 물론 기관의 업무경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숙 광양시 노인복지팀장은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를 더 많이 확보해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과 어르신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양시청 카카오톡' 양방향 소통 호응

2개월만에 민원 407건 답변

광양시가 지난 1월 새롭게 선보인 '광양시청 카카오톡'이 쉽고 빠른 양방향 소통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시민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양시청 카카오톡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기존의 SNS와 달리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1대1 채팅방을 통해 편리하게 묻고 실시간으로 답변해주는 메신저형 소통 채널이다.

시는 SNS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야간과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카카오톡 답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각종 문화행사와 유익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운영 개시 2개월 만에 '친구'에 가입한 인원이 4452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시는 '카카오톡'을 통해 총 407건의 민원문의에 실시간으로 답변했으며 민원유형별로는 일반행정 분야가 122건

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관광이 57건, 도로·교통 56건, 교육·보육 42건 순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시정격려 등 안부 메시지도 93건을 기록했다.

시는 1대1 카톡방의 특성을 살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1대1 밀착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해당 사항을 전달받아 답변을 시민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한 한 시민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시정정보가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들어와 편리하고 유익하다"며 "그동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을 카톡으로 보내면 답장을 받을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광양시청 카카오톡의 소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을 실행 후 '광양시청'을 검색해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양의 봄 즐길 관광상품 GS홈쇼핑 통해 특별판매

광양 관광상품이 GS홈쇼핑 채널을 통해 국내 관광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광양시는 매화향 가득한 광양의 봄을 즐길 수 있는 1박 2일 관광상품을 GS홈쇼핑을 통해 특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홈쇼핑 방영은 2016년부터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자체 관광상품 판로 지원을 위해 GS홈쇼핑, 롯데관광과 손잡고 매년 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으로 완판을 하며 수도권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여행상품은 지난 6일부터 31일까지 광양의 대표적 볼거리와 먹거리로 구성된 1박 2일 코스 상품으로 구성됐다.

이번 관광상품은 'GS my shop' 채널을 통해 방영되며 9일 오후 7시 9분 방송을 시작으로 10일 오후 9시 11분과 11일 오후 6시 29분, 13~15일 오후 7시 9분 등 총 6차례 방영될 예정이다.

김문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홈쇼핑 TV 방영을 통해 광양의 매화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숨은 관광자원과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적극 홍보해 감성과 문화, 관광도시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연중 관광객들이 찾는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12일 개장...하루 2회 공연

광양시는 서천 무지개분수를 매화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12일부터 개장한다.

무지개분수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평일은 지난해와 같이 오후 8시와 8시 30분,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8시와 9시에 각각 2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무지개분수 개장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프로그램 10곡을 추가 제작하고, 노후 된 시설물과 화염분수를 교체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무지개분수 워터스크린을 이용해 동영상과 사진 연출, 레이저, 음향으로 생일축하, 프리포즈 등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는 광양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서천무지개분수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많은 시민이 무지개분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서천 무지개분수의 사진과 동영상, 공지사항을 게재할 방침이다.

김성근 광양시 시설관리과장은 "서천

무지개분수를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시원하고 아름다운 물줄기의 향연을 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서천무지개분수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과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을 서천변에 위치한 서천변 무지개분수는 지난 2011년 개장한 이후 다양한 음악분수 퍼포먼스로 시민은 물론 광양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야간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포스코기술대학 입학식...신입생 42명 전문 철강인 육성



포스코 사내대학인 포스코기술대학(학장 김순기 상무)이 다섯 번째 입학식을 갖고, 차세대 전문 철강인으로 거듭날 신입생 42명을 받았다.

7일 광양캠퍼스(금호동 소재)에서 열린 입학식(사진)에는 김학동 광양제철소장 등 경영진과 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해 입학식을 격려했다.

신입생 42명은 근무 성적과 성장 가능성이 큰 직원들 중 현업 부서장들이 추천한 인원을 종합 평가해 지난해 11월 최종 선발한 인재들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현업과 병행하며 주말을 포함해 매주 3회 수업과 정기적인 시험을 치른다. 등록금과 수업에 드는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하며 이들이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돕

는다.

포스코기술대학은 오랜 기간 학업을 중단했던 직원들이 무리 없이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사전학습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학기 중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학동 제철소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100년 기업으로 계속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끊임없는 발전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경험과 이론 지식을 모두 갖춘 세계 최고 철강 전문인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